

1.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각 제시문의 출처와 내용 소개

[가] 이 제시문은 사회철학자인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가 전쟁에 대해 쓴 자신의 논문들을 모아 2004년에 출판한 단행본 *Arguing About War* (Yale University Press)의 3장(비상사태 윤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논술 시험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유홍림 외 옮김, 『전쟁과 정의』, 인간사랑, 2009. pp. 61-64, pp. 81-82). 이 글은 도덕 공동체의 집단적 생존이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최고 비상사태에서는 비도덕적 행위가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는 비상사태의 윤리를 제시한다. 비상사태의 윤리는 상이한 두 도덕관, 즉 개인의 권리를 절대시하는 도덕관과 다양한 가치의 경중에 따른 판단이 정당화된다는 도덕관 사이에 위치한다.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희생보다 도덕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도덕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의 정상성을 강화한다는 방식으로 두 도덕관 사이에서의 정합성을 모색한다.

[나] 이 제시문은 대명세(戴名世, 1653-1713)의 「인녀설(隣女說)」이라는 글로 『연꽃 속에 잠들다』(이지, 원평도, 장대, 대명세 지음, 이종주 옮김, 태학사, 2005년, 224-226쪽)에 실려 있는 글이며, 발췌한 글은 논술시험의 목적에 맞춰 일부 수정을 가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동쪽 집 처녀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쪽 이웃 여자와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동쪽 집 처녀는 예쁘고 정숙한 반면에 서쪽 집 여자는 비루하지만 시집을 잘 갖기에, 동쪽 집 처녀는 서쪽 집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시집을 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에 서쪽 집 여자는 원래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하기 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변하였고, 이를 들은 동쪽 집 처녀는 그와

같은 의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후 더 이상 왕래하지 않겠노라며 강한 비판의 뜻을 표정과 행동을 통해 피력하고 있다.

[다] 이 제시문은 최초의 국어사전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집중 조명한 『우리말의 탄생』의 일부를 발췌하여 논술 시험을 위해 일부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2006, pp.186-189). 제시문에서는 표준어의 제정이 모국어의 통일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 구성원에게 일관성 있는 표현을 강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인위적으로 결정된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관계가 방언의 쇠퇴를 가져와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을 사장시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전의 뜻풀이 과정에서도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의미를 동일시하여 별도의 뜻풀이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방언형이 갖는 미세한 의미 차이나 뉘앙스가 무시되는 결과를 빚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라] 이 제시문은 권인호의 논문 “동학사상과 갑오농민전쟁의 근대적 자주성”의 일부를 발췌하여 논술 시험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한국민족문화』 제39호, 2011, pp.31-69). 이 글에서 필자는 동학농민전쟁을 비롯한 조선 후기 민중의 저항들을 소개한 후, 이러한 몸부림이 비록 폭력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도탄에 빠진 민중이 체제에서 용납하지 않는 최후의 수단인 폭력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의 지도층이 기존 질서 유지에 집착한 나머지 제도 개혁을 등한시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생존권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3. 문제 설명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이 문제는 특정 제시문의 요약 능력, 다른 제시문들과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제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얼핏 보기에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제시문들 사이에서 관점의 상동성(相同性)과 상이성(相異性)을 결정해주는 공통적인 논제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번 논술에서는 ‘목적(또는 결과)과 수단(또는 방법, 과정)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목적(또는 결과)이 수단(또는 방법, 과정)을 정당화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가부 입장을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판별하여야 한다.

1. [가]의 내용 요약

최고 비상사태는 도덕적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가장 굳건한 가치들과 공동체의 집단적 생존이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는 고의적인 민간인 살상과 같은 행위가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는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가 제시된다.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희생보다 도덕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도덕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의 정상성을 강화한다는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2.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이다. [가]는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를 옹호하는 글로서, 이에 따르면 최고 비상사태 하에서는 일부 수단적 혹은 방법적 조치가 갖는 외관상 비도덕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최고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러한 수단 내지 방법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른 것으로, 주어진 제시문들 가운데 이와 반대되는 관점을 피력한 것은 [나]와 [다]이다.

2-1. 제시문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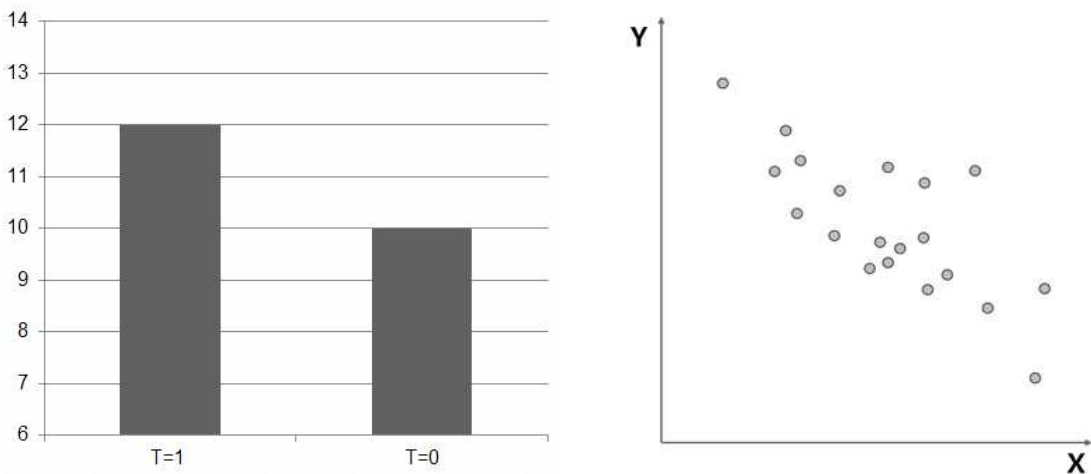
제시문 [나]는 시집을 가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버리고 시류에 영합하기에만 힘쓰는 서쪽 이웃 여자를 비판하고 있다. 애초 예쁘고 정숙한 동쪽 집 처녀는 서쪽 이웃 여자에게 시집을 잘 가는 방법을 물었지만, 서쪽 집 여자는 “당신이 지난날의 모습을 바꾸고 새 단장을 하고서 문가에 기대 웃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유.” 라고 답하며 자신을 버리고 시류에 편승해야한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동쪽 집 처녀는 표정과 행동을 통해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이 제시문은 동쪽 집 여자의 시선과 행동을 통해 시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서쪽 이웃 여자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제시문 [가]의 맥락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2-2.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다]는 단일한 모국어의 정립을 통해 민족 문화의 보존과 근대 민족국가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루어진 표준어 제정이, 그 제정 방식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당시의 제정 방식이 방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국어의 다양성을 말살하거나 그 지역의 문화 가운데 자리 잡은 방언의 고유한 의미를 무시해 버리는 결과를 빚어낸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어의 제정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국어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제시문의 주장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제시문 [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 2】



<그림 1>

<그림 2>

A라는 스포츠 종목에서 일부 선수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규정상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약물은 선수의 기량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등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위의 두 그래프는 이 종목에서 약물 복용 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각각 동일한 기간 동안 조사한 자료로서, 약물 복용과 선수들의 평균 득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1>은 약물을 복용한 일부 선수들(T=1)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T=0) 각각의 경기당 평균 득점을 나타낸다. <그림 2>는 이 종목에 속한 20개 팀들에서 각 팀별로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비율(X)과 팀의 경기당 평균 득점(Y)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 준다. 위 그래프들에서 나타난 통계적 특성은 조사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한 선수의 약물 복용이 다른 선수의 기량이나 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경우 복용량이 서로 같다고 가정할 때, <그림 1>과 <그림 2>가 의미하는 것을 각각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그림 2>가 같은 기간에 공존하게 된 이유를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 이 문제는 도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1. 개요

본 문제는 집단 수준과 개인 수준에서 서로 상충되는 통계적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모순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통계 자료와 문제에서 주어지는 가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수들의 평균 득점과 약물 복용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 서술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2. 해설

<그림 1>은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평균 득점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반면 <그림 2>는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비율이 높은 팀일수록 평균 득점이 낮은 경향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개인 수준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득점을 높임에도, 팀 수준에서는 약물을 복용한 선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득점이 낮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경향성을 개인 수준에도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그래프들에서 나타나는 모순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 2>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패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림 1>과 <그림 2>를 종합해보면, <그림 2>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약물을 복용하는 선수의 비율이 늘어나면 그것이 팀 평균 득점을 하락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평균 득점이 원래 낮은 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선수가 약물을 복용하면 기록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 선수 비율이 높은 팀이 높은 평균 득점을 올리지 못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후(事後)에라도 규정상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선수 생명이 박탈당할 정도로 치명적인 처벌을 받음을 고려하면, 약물을 복용한 일부 선수들의 절대적 수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이유로 비록 특정 팀에서 약물 복용 선수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그 팀의 평균 득점 변화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힘들 것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물론 <그림 2>의 패턴은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로 인해 팀의 평균 득점이 상승한 결과가 이미 반영된 것이기에, 평균 득점이 하위권인 팀들에서는 일부 선수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득점 상승이 없었다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보다 평균 득점이 더 낮게 나타났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또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 외에도 다른 가능한 답들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문제에서 명시한 가정들로부터 자유로운 설명이어야 하고, 약물 복용과 팀 평균 득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정답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답안 예시

<그림 1>은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득점을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그림 2>는 각 팀에서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팀의 평균 득점이 낮아진 사실을 드러낸다. 즉 두 그래프는 약물의 효과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외관상 모순은, 약물 복용 선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팀의 평균 득점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평균 득점이 낮은 팀에서 더 많은 선수들이 약물 복용을 한 것으로 사건의 선후관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즉 평균 득점이 낮은 팀에서 더 많은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규정상 엄격히 금지된 약물 복용 사실이 사후에라도 적발되면 선수 생명을 박탈당하는 등 선수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처벌이 예상돼 약물 복용 선수의 절대적 수치가 적어 팀의 평균 득점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 3】

<보기>는 하나의 가상 상황이다.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시오. 단,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정부가 결정한 B라는 스포츠의 남북 단일팀 구성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는 우리 팀만 출전 자격이 있었는데 이번 단일팀 구성으로 출전 자격이 없던 북측 선수 일부가 참여하는 대신 우리 측 선수 일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 기회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의 남북 관계 상황으로 보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이득이 된다고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 이 문제는 주어진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오직 제시문의 논거만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개요

<보기>에 의하면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 측 선수의 정당한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자 한다. 이는 단일팀 성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앞세워 그 수단 내지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즉 우리 측 일부 선수로부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은 설령 그러한 수단 내지 방법이 의롭지 못한 것일지라도 남북 단일팀 성사로 얻을 수 있는 보다 더 큰 이익 앞에서는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주장에 찬성하려면, 제시문들 가운데 수단에 대한 목적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가]와 [라]의 논거는 적극 지지하는 반면, 수단의 옳고 그름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즉 수단 우선성을 강조하는 [나]와 [다]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거꾸로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나]와 [다]의 논거는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가]와 [라]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주장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제시문의 논거들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내용을 단순 나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문제의 요구사항,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글쓴이 자신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도록 논리적으로 잘 조직해야 한다.

2. 제시문의 논거 활용

1) 정부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

[가] 이 제시문은 도덕 공동체의 집단적 생존이 절박한 위험에 처한 최고 비상사태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하는 행위, 즉 평상시에는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라도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는 윤리적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도덕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도덕적 수단도 용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논제와 관련시켜 보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목적을 내세워 우리 측 선수의 정당한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자 한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제시문 [가]에 의거하여 옹호하려면, 정부가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을 우리 공동체의 집단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즉 최고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선수의 개인적 권리 박탈이라는 비도덕적 수단도 용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국제 사회의 냉엄한 질서이고 남북 관계 역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부로서는 지금의 상황을 공동체의 존립이 위기에 처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 공동체의 존속을 지상과제로 간주하는 정부로서는 선수 개개인의 경기 참여의 권리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존속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구성원인 개인의 생존 역시 불가능하며, 선수 개인의 경기 참여 권리가 갖는 가치 역시 국가가 존속해야만 그 가치가 실제로 보장받고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서 오는 이익을 압도할 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 이 제시문은 시집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류에 편승해야 한다고 말하는 서쪽 이웃집 여자의 행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제시문 [나]를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시문에서 동쪽 집 여자는 시집가는 방법에 대해 자신에게 조언해주는 서쪽 이웃 여자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지만, 그 자신이 정숙하고 단정한 용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무 살이 되도록 중매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런 절박함 속에서 서쪽 이웃 여자에게 시집을 갈 방법을 물었던 정황을 고려한다면, 동쪽 여자는 서쪽 이웃 여자의 조언 가운데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감수하는 것이 맞다. 곧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모르지만,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것보다는 애초 자신이 추구했던 더욱 중요한 목적인 결혼을 위해서 서쪽 이웃 여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옳다.

더구나 서쪽 이웃 여자가 조언한 내용은, 그녀가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여자들과 어울려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야 한다는 점 등으로, 크게 봤을 때 세상의 시선에 따라 자신을 맞추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신의 모습을 치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결혼이란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공존을 전제한다는 점, 그리고 타인과 주변 상황에 대해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할 때라야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과적으로 애초 자신이 추구한 자신의 참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서쪽 이웃 여자의 조언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충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보기>에 제시된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결혼이 더욱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쪽 이웃 여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 역시 중대성 면에서 보다 우선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팀 구성 또한 지지될 수 있다.

또한 타인 등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와 배려는 향후 성공적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논리를 통해서도 단일팀 구성을 옹호할 수 있다. 곧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이 원치 않는 단일팀 구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선수들의 운동이 개인의 신체 단련에 그치는 자족적 활동이 아닌 이상, 그 운동 역시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공존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단일팀 구성 역시 그들이 행하는 운동의 가치 속에 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단일팀을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선수 자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 바꿔 말하면 이 땅에 평화가 우선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자신들의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단일팀 구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 제시문은 표준어의 제정이 국가 구성원에게 일관성 있는 표현을 강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생기는 방언 배제와 쇠락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의 제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시기이다. 여타 근대 민족국가의 표준어 제정과도 그 결을 달리하는 특수한 상황이며 모국어의 통일을 통해 민족 문화를 지키고 독립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절박한 목적 의식을 가진 시기이다. 따라서 표준어의 제정은 그 방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남북관계 상황으로 보아 지금이 일제강점기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 상태이며,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목적 의식이 확고하다면, 비록 선수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방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단일팀 구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또한 방언에 대한 배제 혹은 무시는 한 학회가 주도적으로 표준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지 표준어 제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즉 표준어 제정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표준어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지 남북 단일팀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제시문에서 필자는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생존권의 확보라는 목적이 기존의 제도 내에서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폭력을 앞세운 민중의 봉기가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 들어서 시도된 제도 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기존 체제 내에서 민중의 삶이 개선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민중들에게는 무장 봉기라는 선택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제시문 [라]의 논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은 지지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 정착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민족 최대의 염원이며 최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이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남북한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남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비록 이러한 방안이 일부 선수의 출전권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유발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

[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권을 이미 확보한 일부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박탈하려는 정부의 주장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의 논거를 비판해야 한다. 즉 제시문 [가]의 논거를 부정하는 방식은 현재 상황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고의 비상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 옹호되는 최고의 비상사태 윤리는 제시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도덕적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더 흉포한 비도덕성에 직면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면 사악한 자들의 성공을 저지할 수 없는 제한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그런데 현재 논의 맥락은 전쟁의 상황이 아닌 평상시이며, 남북 관계 개선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방식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제시문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비상사태라고 선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이데올로기적인 용법에서 나타나는 사후적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비상사태의 윤리는 권리의 정상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관, 즉 권리를 절대시하는 도덕관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이러한 도덕관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선수들의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획득한 출전권을 정부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박탈하는 비도덕적 행위, 즉 권리 침해 행위는 권리의 정상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권리의 정상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 제시문은 시집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류에 편승해야 한다고 말하는 서쪽 이웃집 여자의 행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숙한 동쪽 이웃 여자가, 서쪽 이웃 여자가 조연한 부도덕한 내용을 받아들여 자신이 애초 가진 참 모습을 왜곡하고 인위적으로 포장한다면, 설령 자신이 원하던 결혼이란 목적 자체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혼이란 오랜 시간을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일시적인 꾸밈으로 상대를 속일지는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것이기에 결국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심한 경우는 속였다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결과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혼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지키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좋아할 평생의 반대를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과 마찬가지로, 목적의 실현만을 위해 과정을 살피지 않고 단일팀을 밀어붙이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화해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내부의 반목을 조장하는 셈이어서, 그 화해가 가지는 숭고한 의미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단일팀은 바람직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럴 때라야 누구나가 원하는 성공적인 남북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정부의 주장을 반대할 수 있다.

[다] 이 제시문은 표준어의 제정이라는 목적이 타당하고 그것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표준어의 제정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표준어 제정이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방언을 지역 문화의 보존 수단으로 인식하여 각종 방언 사전의 편찬을 지원하거나 방언형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은 이러한 표준어 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목적에 대한 수단 내지 방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목적을 앞세우는 정부의 단일팀 구성 정책을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방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이루어진 남북 탁구 단일팀은 대회 진행 중에 갑자기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참가국 전체의 동의를 얻고 남북 선수 모두 출전 선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선수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피해도 막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여타 남북 단일팀의 구성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 방법의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주도의 표준어 제정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횡포에 맞서 의사소통 및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적 방언들의 고유 권리도 존중하면서 표준어를 제정해야 하듯이, 단일팀 구성 역시 선수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도 함께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적의 정당성은 오히려 수단 내지 방법의 정당성과 함께할 때에만 확보되며, 이 점을 무시하는 정부의 남북 단일 스포츠 팀 구성 정책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

[라] 이 제시문은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폭력이 더 큰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중 봉기의 결과 피해를 입은 당시 조선의 지도층은 폭력을 동원하여 반격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군대에 의해 농민군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였고 결국 한일 강제병합이라는 민족적 치욕으로 이어졌다. 이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을 이용할 경우 향후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의 정착이라는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수 국민의 권리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 이미 정해진 선수단 구성을 바꾸기 위해 일부 선수의 출전권을 제한하는 것은 소수의 국민에 대한 정부의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이 다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정부는 이번 조치가 초래할 파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전권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에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대표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합리성 관련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책이 집행될 경우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익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자칫 반인권적 정책이 일반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타당하지 않으며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4. 문제별 평가 기준 및 점수 부여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유의 사항>

- 100점 중 요약에 30점,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에 10점, 차이점 밝히기에 60점을 배정한다.

1) 제시문 [가] 요약: 30점

- 30점 - 2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요약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2)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10점

- 10점: [나]와 [다]를 모두 찾은 경우.
- 5점: 하나만 찾은 경우.
- 0점: 둘 다 못 찾은 경우.

3)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및 차이점 밝히기: 60점

- 60점 - 51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 50점 - 41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 40점 - 31점: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혹은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30점 - 21점: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 2】

A라는 스포츠 종목에서 일부 선수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규정상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약물은 선수의 기량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등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위의 두 그래프는 이 종목에서 약물 복용 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각각 동일한 기간 동안 조사한 자료로서, 약물 복용과 선수들의 평균 득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1>은 약물을 복용한 일부 선수들($T=1$)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T=0$) 각각의 경기당 평균 득점을 나타낸다. <그림 2>는 이 종목에 속한 20개 팀들에서 각 팀별로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비율(X)과 팀의 경기당 평균 득점(Y)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 준다. 위 그래프들에서 나타난 통계적 특성은 조사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한 선수의 약물 복용이 다른 선수의 기량이나 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경우 복용량이 서로 같다고 가정할 때, <그림 1>과 <그림 2>가 의미하는 것을 각각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그림 2>가 같은 기간에 공존하게 된 이유를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유의 사항>

- 100점 중 <그림 1>과 <그림 2>가 의미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에 **30점**을, <그림 1>과 <그림 2>가 같은 기간에 공존하게 된 이유를 추론하는 것에 **70점**을 배정한다.

1) <그림 1>과 <그림 2>의 의미 기술: 30점

- 30점 - 21점: <그림 1>은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평균 득점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더 높은 것을 나타내고, <그림 2>는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비율이 높은 팀이 평균 득점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냄을 기술하는 경우
- 20점 - 11점: 위와 매우 유사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나, <그림 2>를 해석함에 있어 약물 복용이

평균 득점을 낮춘 것으로, 즉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우

- 10점 - 0점: 위와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

2) <그림 1>과 <그림 2>가 같은 기간에 공존하게 된 이유에 대한 추론: 70점

- 70점 - 61점: 약물이 팀 평균 득점을 낮춘 것이 아니라, 팀 평균 득점이 원래 낮은 팀에서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이 많은 것임을 지적한 경우. 평균 득점이 낮은 팀들은 약물을 복용한 선수의 상대적 비율이 높을지라도 그 선수들의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팀 평균 득점의 전반적 순위가 뒤바뀌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해야 함. 이 외에도, 설명에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경우
- 60점 - 41점: 추론을 제시함에 있어 위에서 설명된 부분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와는 다른 설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가정을 상정해야 해야 하는 경우
- 40점 - 21점: 답이 문제에 주어진 가정과 조건에서 벗어나거나, 위에 제시된 답의 중요한 부분이 추론에서 누락되는 경우
- 20점 - 10점: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고, 비상식적인 가정을 도입하는 경우
- 11점 - 0점: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답을 제시한 경우

【문제 3】

<보기>는 하나의 가상 상황이다.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시오. 단,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유의 사항>

- 전체 100점 중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활용한 데 3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활용한 데에 50점,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1)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30점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다소 부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지 못하였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를 활용하여 정당화하였을 경우.

2)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50점

- 50점 - 4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면

서 활용했을 경우.

- 40점 - 3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다소 부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은 채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논거만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적 그럴 듯하게 비판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부적절한 근거로 비판하였을 경우.

3)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 20점

- 20점 - 11점: 표현이 정확하면서 글의 구성이 논리적일 경우
- 10점 - 0점: 표현이 부정확하고 글의 구성이 비논리적일 경우